

만 주 사
晚洲祠

(광주광역시 북구 ^{소 해 로}蘇海路 11번지)

晚-碑銘



만 주 사 文 忠 公 淵 齋 宋 秉 璿 先 生 과
晚洲祠는 ^{소 해}蘇海 ^{노 종 용}盧鍾龍 선생을 ^{향사}모셔 享祀 하는 곳이다.

^{순종}純宗 ^{신사}辛巳(1941)年 ^{호 남}湖南의 ^{향 교}鄉校 · ^{서 원}書院 등 ^동鄉內
^{수 백}數百 ^{유 림}儒林의 ^연연이은 ^{발 론}發論으로 ^{문 忠 公}文忠公 ^{淵 齋}淵齋 ^{송 秉 璿}宋秉璿
선생과 ^{소 해}蘇海 ^{노 종 용}盧鍾龍 선생의 ^{유 풍}遺風을 ^{추 모}追慕하기 위하여
^{갑 신}甲申(1944) ^현現 ^{소 개 지}所在地에 ^{사 우}祠宇를 ^{창 건}創建하였다.

^{淵 齋}淵齋 ^{진 상}眞像을 ^{중 당}中堂에 ^{봉 안}奉安하고 ^{소 해}蘇海 ^{진 상}眞像을 ^{동 벽}東壁에 ^봉奉
安하였는데, 이곳은 ^{소 해 공}蘇海公 ^{생 존 시}生存時에 스승이신 ^{淵 齋 先}淵齋先
生의 ^{영 정}影幀을 ^{봉 안}奉安했던 곳이기도 하다.

향 사 일 매 음 력 월 일
享祀日 : 每 陰曆 9月 20日

※ 2011년 7월 29일 : 이 고장 ^{일 곡 동}日谷洞 출신 ^{소 해}蘇海先生을 기리기
위하여 ^{만 주 사}광주시에서는 晚洲祠 앞길을 ^{소 해 로}蘇海路라 ^{명 명}命名하였다.

□ 淵齋 宋秉璿

淵齋 宋秉璿 선생은 ^{인 계}士林의 ^{종장}宗匠이며
 벼슬이 이조참의 공조참판 사헌부대사헌에
 이르렀다, ^{을사}乙巳 1905년 ^{국권}國權을 ^{찬탈}篡奪
 당함에 ^{난신}亂臣들을 ^{극형}極刑에 처하도록 ^{상소}上疏
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^{자결}自決하시니
 임금이 슬퍼하고 ^등2等 ^{장례}葬禮에 ^{특사}特賜하며
 ‘^{문충}文忠’ ^{시호}諡號를 내리셨다.



^{은진인}恩津人, 號는 淵齋라한다. ^{우암}尤庵 宋時烈의 ^{세손}九世孫으로 1836년 ^{출생}出生,
^{서연관}書筵官, ^{경연관}經筵官, ^{참판}參判을 거쳐 ^{대사헌}大司憲에 올랐다.

항상 옳은 것을 지키고 ^{사악}邪惡을 배척하며 ^{일본}日本의 ^{침략}侵略行動을 ^{반대}反對하였다.
^{을사}乙巳勒約이 ^{체결}締結되었다는 ^{소식}消息을 듣고 ^{통분}痛忿하여 ^{수일}數日 ^{절식}絶食 끝에 ^{분연}奮然
 히 일어서 ^{상소}王께 ^{조약}上疏하여 ^{과기}條約의 ^{주장}破棄를 ^{주장}主張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
 하고 ^{추연}惘然히 이르기를 『^{국망}國亡 ^{도망}道亡 ^{인류}人類此滅 ^{오지}吾之所處가 ^{지일사수}只一死守
 이기 ^{오당이사}而己라 ^{간오군}吾當以死로 ^{선사}諫吾君이라』 하고, 이어 ^{선사}先祠에 ^{고결}告訣한뒤 곧바로
^{도성}都城에 이르러 ^{고종}高宗앞에 나아가 “나라가 있는 ^후後에 ^도道가 있는 것인데
 이제 ^{래하}陛下의 나라가 이미 ^망亡하여 ^{천하}天下의 ^도道가 ^망亡하였으므로 ^{래하}陛下의
 咫尺이 곧 ^{신사처}臣의 死處라”하며 ^{소청}所請을 들어 달라 ^{주언}奏言하였으나 ^{정무사}警務使
^윤尹○○가 ^{강제}強制로 ^{교자}轎子에 태워 ^{남문}南門밖 ^{일본}日本憲兵에게 ^{인도}引渡되어 ^{향리}鄉里로
^{이송}移送되고만 것이다. ^{망국}亡國의 ^{울분}鬱憤을 참지 못하고 ^{대전}大田 ^{석남촌}石南村에서
^{의관}衣冠을 ^{정제}整齋하고 ^{북향}北向四拜한 ^후後 ^{음독}飲毒 ^{자결}自決하니 때는 ^{광무}光武九年(1905.
 12. 5) 公은 ^{칠십}七十歲였다. 후에 ^{영의정}領議政에 ^{추증}追贈되고 ‘^{문충}文忠’ ^{시호}諡號가 내렸다.
 1962년 ^{대한민국}大韓民國 ^{건국}建國功勞勳章이 ^{수여}授與되었다. (淵齋年譜, 淵齋集, 承政院日記)

소 해 노 종 용
□ 蘇海 盧鍾龍

소 해 선생 일 곡 동 태생
蘇海先生은 日谷洞 胎生으로
연 재 송 병 선 변 암 최 익 현
淵齋 宋秉璿 선생 勉庵 崔益鉉
선생과의 문하에서 의와 도를



소 해 정 경 의 재
蘇海亭 (현재 景義齋)



답은 제자로, 1910年 庚戌國恥에 痛哭

하고 수차 上疏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에 이곳에 蘇海亭을

짓고 隱遁, 心石 宋秉珣 · 松沙 奇宇萬 · 弦窩 高光善 · 難窩 吳

繼洙 鹿川 高光洵 · 慎庵 盧應奎 諸公과 道義의 交를 맺어

學問을 논하며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려면 먼저 後進育成이 시

급한 일이라 생각하고, 全國盧氏三陵壇大宗會 · 三一契 · 報本契

등을 조직하여 후진양성에 힘쓰는 한편, 獨立軍 軍資金을 調達하

다 발각되어 累差 獄苦를 치르고 歸家하였으나, 三代獨子인 아들

또한 日本官憲으로부터 갖은 拷問을 당하고 있음에 痛憤 속에서

三代獨子인 아들의 出獄을 보지 못한 채 忽然히 세상을 떠나셨다.

오 백 년 社稷이 衰落함에 八道人士들이 敵愾心으로 逆賊을

聲討하면서 國權을 回復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니

憤死하여 義를 이루는 이도 있고, 시골에 隱遁하여 몸을 깨끗이

하고 後進養成에 힘을 쏟는 이도 있었으니, 그 방법은 다르나 그

의 義는 같다 할 것이다. 이러한 義를 길이 本받고자 이 고장 儒林

이 본 晚洲祠를 건립하고 精誠을 다하여 享祀에 임하고 있다.

※ 光州市에서는 蘇海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晚洲祠 앞길을 蘇海路라 명명하였다.

(光州古典國譯叢書 樓亭題詠- 蘇海亭 참조)

清江先生真影



社院總理盧公真影

